

탄소중립과 우리의 과제

대전충남녹색연합 박은영 사무처장

요즘 많이 들리는 그 단어



코로나 19
비대면
기후위기
그린뉴딜
탄소중립?

탄소중립 (Net-Zero) 순배출 제로,
탄소를 배출하면 상쇄하는 조치를 통
해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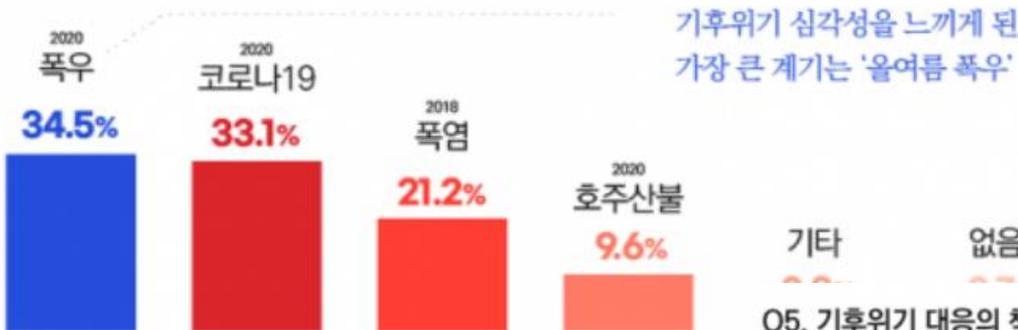
모두가 체감하는 기후위기

Q1.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세요?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인 97.7% '기후위기 심각'하다고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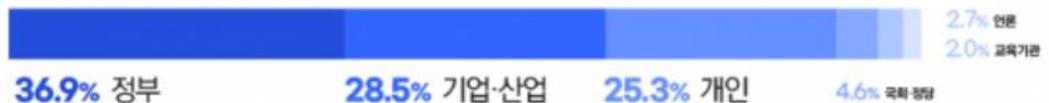
Q2. 기후위기 심각성을 크게 느낀 계기는 무엇인가요?



○ 녹색연합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500명의 97%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느끼며, 코로나와 폭우를 겪으며 기후위기 체감한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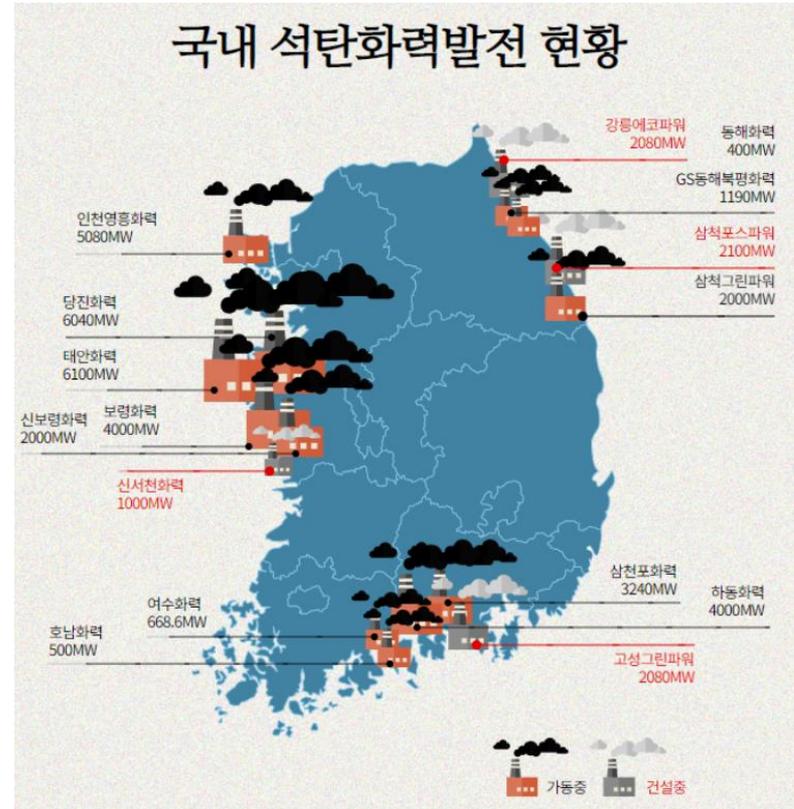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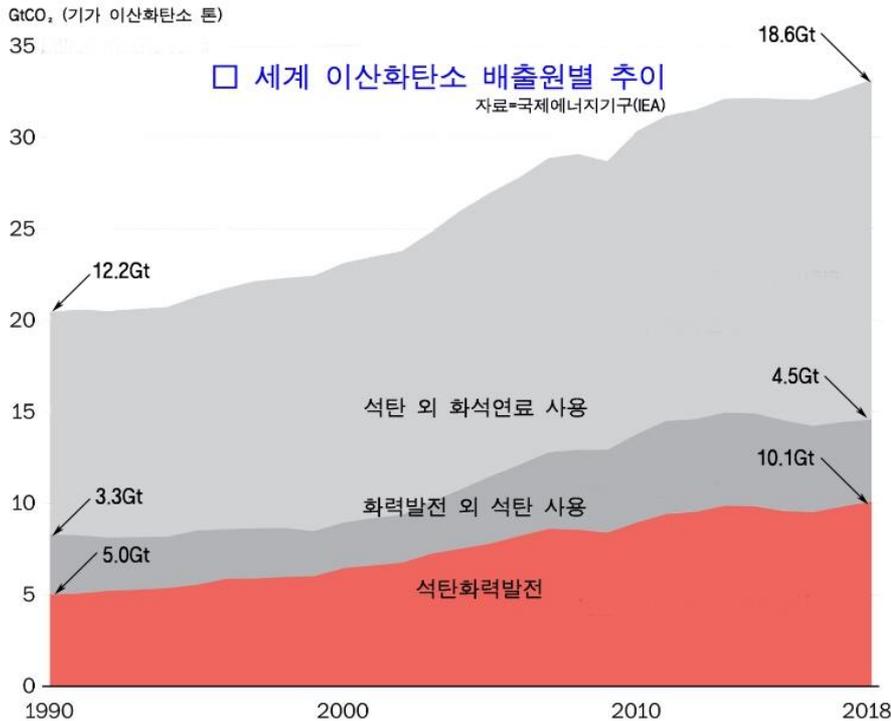
○ 이에 따른 책임은 정부 - 기업과 산업계 - 개인 - 국회/정당 - 언론 - 교육기관 순으로 나타남.

Q5.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후위기 대응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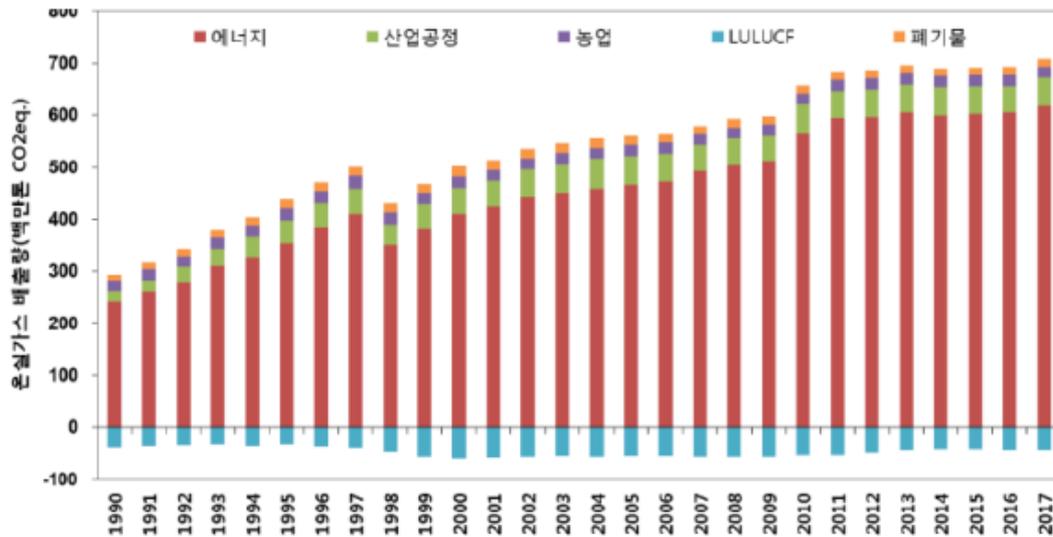
인간의 경제활동 기반인 화석연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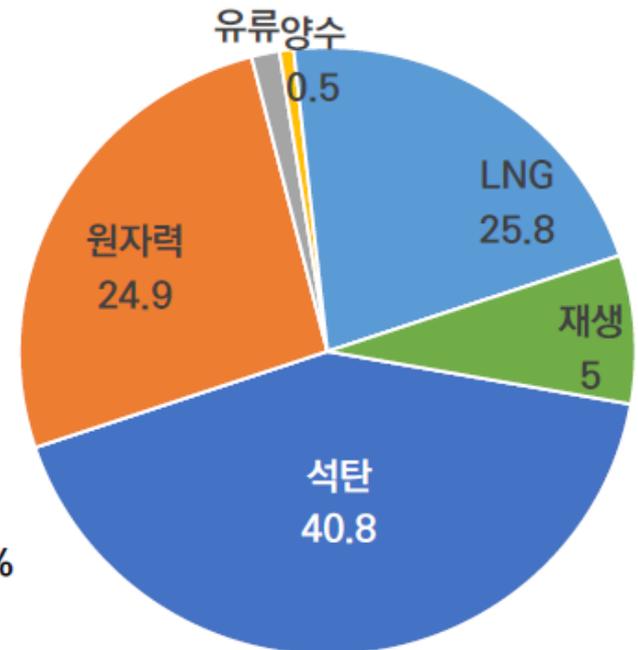
- 세계는 아직도 화력발전 의존 중
- 국내 석탄화력의 60%가 몰려있는 충남. 거기에 전력을 의존하는 대전은 에너지자립률 전국 꼴찌 수준.

기후악당 한국사회

기후악당 한국사회 -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에너지원별 전력생산량 비중 (2019)



출처: BP,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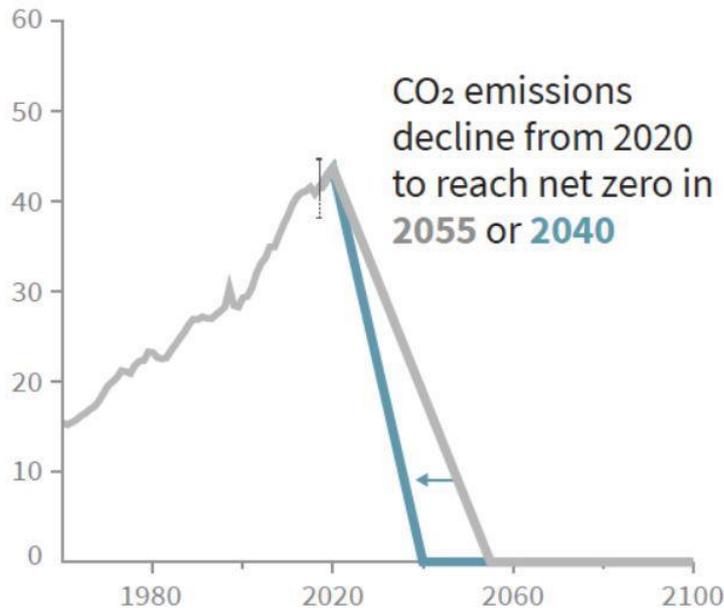
- 2017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711백 만 톤(잠정), 에너지분야 전체 배출량 87%
- 배출원 기준('17년) ① 산업(54%), ② 건물(25%), ③ 수송(14%) 순

※ 전력생산(전환부문) 전체 배출량 40% 차지

출처: 환경부, 2019. 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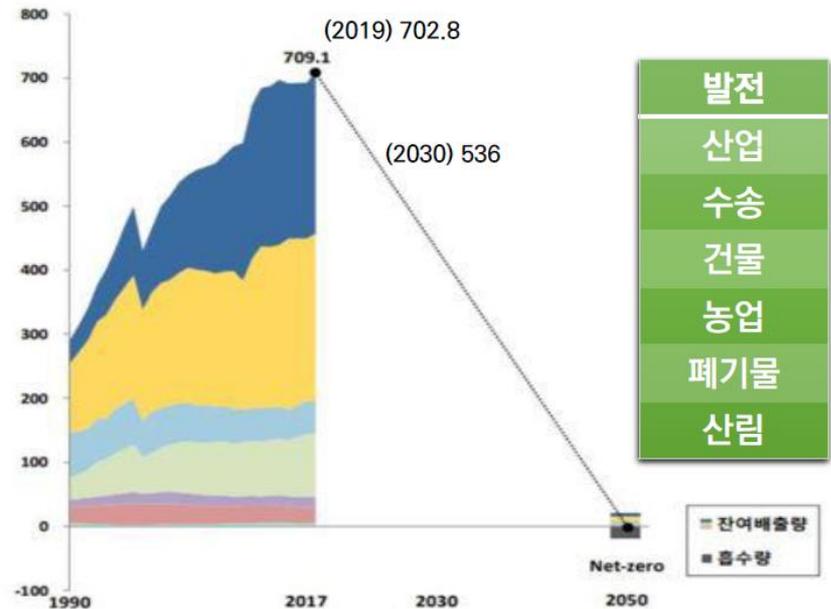
2018년 IPCC 1.5도 특별보고서와 탄소중립

b) Stylized net global CO₂ emission pathways Billion tonnes CO₂ per year (GtCO₂/yr)



Graphic from the IPCC's special report on 1.5C

○ 1.5도 경로에서, 전 지구 인위적 온실 가스 순배출량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소하고, 2050년경에는 Net Zero에 도달해야 한다



출처: 환경부(2020.11.19).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

○ 2050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시대의 마감을 뜻하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그린뉴딜 ©기획재정부

출처: 관계부처합동 (2020.7.14)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2020년 등장한 그린뉴딜 : 탄소중립 목표(Net-Zero)로 재정을 재생에너지를 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재정을 투입해 환경과 일자리를 잡겠다!
- 그러나 화석에너지, 토목기반 정책 여전히....
 - _ 7기 석탄발전 건설과 공적자금 석탄발전 투자
 - _ 정부추진 신공항 6기
 - _ 2019년 기준 2368만대 자동차 등록, 연간 3%증가!
 - _ 에너지정책과 국토정책은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는 정책들 여전히.

유럽과 미국은 탄소중립 진행 중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2050 탄소중립 EU 달성을 위한 그린 딜
탄소국경조정, 탄소발자국 (배터리, 자동차 등)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바이든 대통령

2050 탄소중립, 2035년 전력부문 탈탄소화
연방정부 내 석유 가스 채굴 금지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연방정부 차량 전기차, 수소차 전환, 해상풍력 확대
존 케리 대통령 기후특사

탄소배출을 제한하는 유럽의 새로운 법제들



- EU는 시멘트,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제철 등 원자재 가공제품에 탄소세 부과 예정(2023년 시행)
- 유럽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및 산업용, 휴대용 배터리의 탄소발자국 공개(2024년 7월부터), 탄소발자국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제품 판매 금지(2027년 7월부터)
- 폐배터리 수거율을 2030년까지 70%까지 높이고,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재활용된 코발트, 납, 리튬, 니켈을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할 계획.

무역의존도와 탄소집약도가 높은 한국 경제

참고자료 : 그린뉴딜 정책현황과 전망, 이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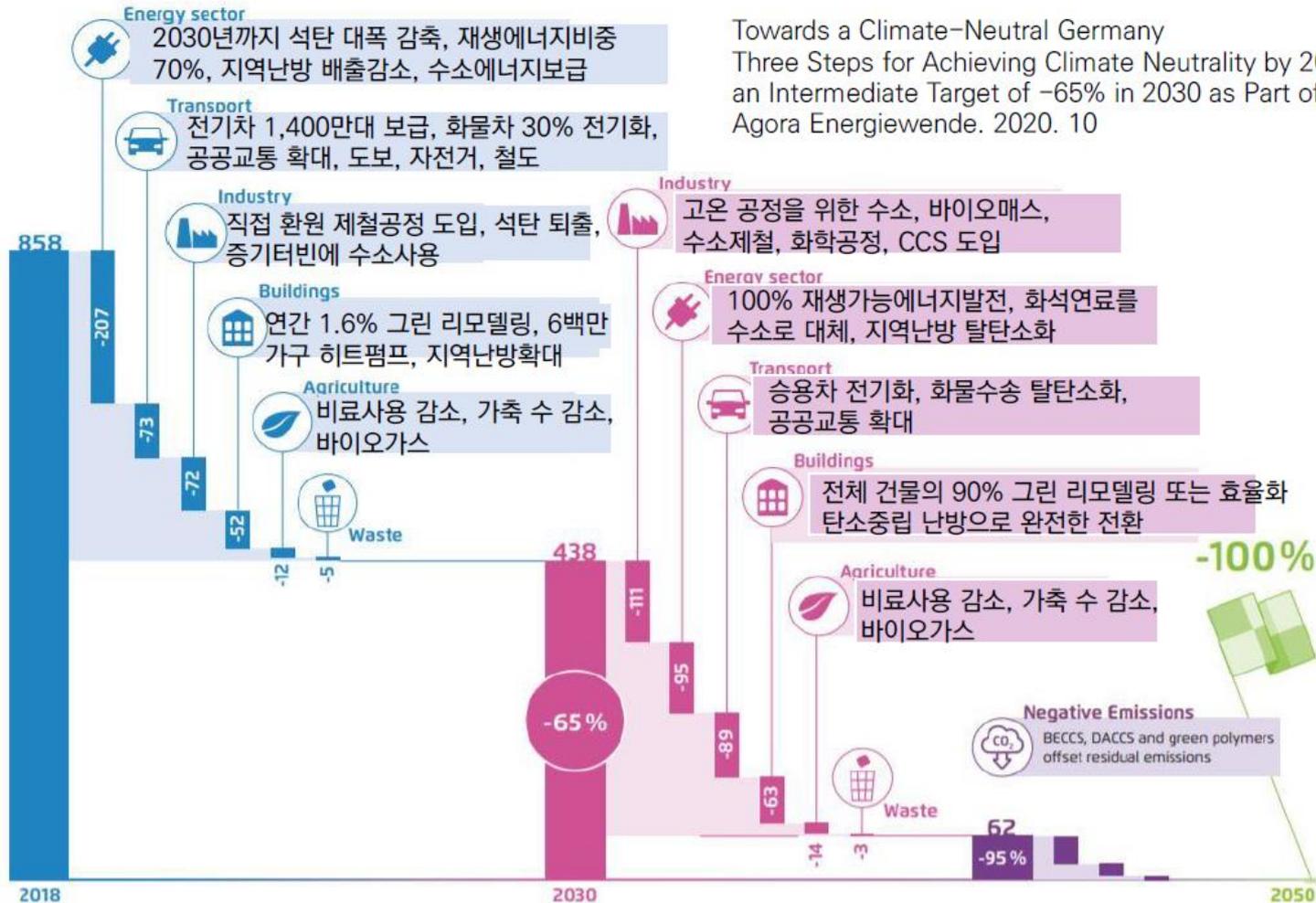
에너지원별 전력생산량 비중 (2019)

이산화탄소 4800만톤을 전 세계로 수출 중인 한국, 탄소집약도 높은 산업은 국경을 넘을 수 없다!

=> 재생가능에너지 100%와 순환경제

- 한국 무역규모는 세계 7위, 주요수출품은 철강,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등 에너지다소비산업 구조
-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1위,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전력 중 석탄비중 40%,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OECD 최하위
- 한국기업지배구조원(2019) '국내외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에 해당하는 100개 업체가 전체 매출량의 87% 비중 예) 포스코 2017년 기준 7100만톤 배출, 전체 배출량 11.3%

독일의 2050 탄소중립 전략



Towards a Climate-Neutral Germany
Three Steps for Achieving Climate Neutrality by 2050 and an Intermediate Target of -65% in 2030 as Part of the EU Green Deal
Agora Energiewende. 2020. 10

Policy measures in the Climate Neutral 2050 scenario (CN2050) (GHG emissions in Mt CO₂ eq)



- 2020년 9월 24일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통과
 -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적극 상향, 2050 순배출 제로 목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수립 촉구,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할 것 등

○ 2020년 1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2050 탄소중립 선언
출처: 기후위기 비상행동 홈페이지

2021 탄소중립 정보 정책 방향, 전망

1. 주요 전망

- 1) 코로나 장기화, 경기 부양책 및 뉴딜 정책 이행(한국형뉴딜 실행)
- 2) 정부 2050 탄소중립 전략 발표(20.12.7) : 2017년 대비 온실가스 24.4% 감축 목표
- 3) 미국 바이든 당선으로 21년 기후변화 파리협정 본격 이행, 유럽 기후정책 강화
- 4)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및 2030년 목표 상향 논의, 그린뉴딜
- 5) 국회 탈탄소전환법, 그린뉴딜 기본법 등 탄소중립 이행법안 발의준비 중
- 6) 탄소중립위원회 구성(2월 예정)

2. 일정

- 후쿠시마 핵사고 10주기
-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 IPCC 6차 종합보고서 발표
-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6, 영국 글래스고, 11.1-12)
- 대선 및 지방선거 (2022년 상반기) 국면

탄소중립 관련 대전시 기후대응 정책

- 대전광역시 2030 온실가스감축로드맵(2020~2030)
 - 2018년 12월 수립,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2018년 6월)
 - 2030년까지 온실가스 262만톤 감축 목표
- 대전광역시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2020~2025)
 - 2019년 4월 수립 / 204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약 221만톤, 에너지자립도 18.2% 상승,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20% 상승 목표
- 제2차 대전광역시 기후변화적응대책(2017~2021)
 - 2016년 12월 수립 / 건강, 농업, 물관리, 재난/재해, 산림/생태계, 산업 분야 대책
- 대전형 뉴딜 중 그린뉴딜
 - 2020년 7월 23일, 대전시 민선 7기 후반기 전략으로 대전형 뉴딜 발표
 - 2025년까지 13.2조원 투자해 일자리 13만 4천개 일자리 창출

대전형 그린뉴딜 ①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단위 : 억원)

도심 녹색 생태계회복	3대하천도시재생그린뉴딜		21~30	4,030	
	한숲만들기	4개 사업	21~25	1,237	
	스마트도시농업밸리조성		21~25	300	
	도심생태녹지축연결		18~28	942	
	미세먼지대응전략2.0		17~22	2,308	
	대전형희망정원프로젝트		21~25	450	
	소 계				9,267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환경통합관제시스템 구축		21~22	20	
	통학로 전선 지중화		21~25	2,000	
	스마트 먹는물 관리	관망관리 인프라		20~21	174
		월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14~24	1,341
		노후상수도개량		20~25	1,827
	스마트하수관리	하수처리장 현대화		21~25	7,536
		하수관로 분류화		21~26	872
		물순환선도도시		17~21	280
	소 계				14,050
				23,317	

대전형 그린뉴딜 ②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에너지 효율화로 스마트 그린시티 구현	에너지저감시범마을	갑천지구 5블록에 스마트그린 주거단지	22~25	400
	도시형폐가스활용 수소에너지 자립화	수소전주기 밸류체인 조성	21-23	195
	공동주택 스마트 계량기 교체		21~25	80
	녹색건축물조성지원	공공건축물(60개소)	20~25	135
		노후영구임대아파트(3300호)	21~25	1,146
		주민센터(14개소)	21~24	700
		시청사	20~22	20
	스마트그린리사이클	IT기반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	21~25	502
	소 계			3,178
그린 모빌리티 보급확대	트램산업클러스터조성		21~25	1,000
	철도중심교통체계	도시철도2호선트램	14~25	7,492
		충청권광역철도1단계	16-24	2,307
	전기수소 보급확대	수소차(30년까지 5천대) 전기, 수소버스(30년까지 200대) 보급 및 충전소(21년, 4개소) 전 주민센터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24, 79개소)	-24	
	소 계			
				13,977

대전형 그린뉴딜 ③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단위 : 억
원)

녹색선도기업육성 및 저탄소 산단 조성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	21-22	503
	산단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개발실증	20-25	100
	전원 자급도시 스마트밸리 조성	21-22	300
	스마트그린부리사업특화단지	21-25	452
	수소산업안전성지원센터	18-21	285
	스마트그린스타트업타운조성	18-25	1,000
	소 계		2,640

○ 계획서상 언급된 예산 합계는 39,934억원

○ 총 예산 87,000억원임을 감안하면 전기차, 수소차 확대에 47,066억원 추정됨.

대전시 탄소중립 비전선포

삶이 건강한 산소도시 대전

시민 중심 · 생태 복지 · 에너지 전환

- 2030년까지 30.6% 감축, 2050년 순(純)탄소배출량 '0' -

지금의 대전			2030	2050
제로 에너지 건축물	2개	→	600개	2,600개
시민 대중교통 분담율	25%	→	40%	50%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0.65%	→	8%	30%
탄소제로 시민참여율	6.5%	→	20%	50%
건강한 도시숲 조성	65개	→	540개	1,000개

- 에너지 낭비없는 녹색건축도시 조성 (건물)
- 청정모빌리티 선도도시 구현(수송)
- 미래에너지 기술개발의 허브도시 실현 (에너지전환)
- 대전형 탄소제로 시민운동 확산(시민협력)
- 건강한 녹색공간 숲속의 도시(도시숲)

탄소중립을 마주한 우리의 질문들

10 Key Solutions Needed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  1. 석탄 발전 모두 폐쇄
-  2.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투자
-  3. 건물 리모델링
-  4. 시멘트 플라스틱 철강 탈탄소화
-  5. 전기차 전환
-  6. 공공교통 확대
-  7. 항공 선박 탈탄소화
-  8. 산림 파괴 중단 토양회복
-  9. 식품 손실과 폐기물 줄이기
-  10. 채식위주 식단 육식 줄이기

우리나라 석탄발전소가 모두 폐쇄 되는 시점은? 그 속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는?

플라스틱 없이 살 수 있을까?

탄소중립 사회에서 어떤 일자리로 전환하거나 새로 만들 수 있을까?

자동차 등 내연기관 생산판매 금지 연도는 어떻게 결정할까?

탄소중립 사회에서 교육은? 세금은? 에너지 가격은?

선언 - 공감 - 전환계획 - 실행 - 평가 - 재수립 - 실행 - 평가

탈석탄을 위한 걸음



- 탈석탄 실행으로 가도록!
 - 6개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 석탄화력에 투자하는 기업, 금융들

- 탈석탄 금고 선언 했으면 실행으로!
 - 2020년 탈석탄 금고 선언에 참여한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 (하나은행, 농협 등)

이게 머선 129 🤯
 기후위기에 투자하려는
 금융사들을
 함께 막아주세요!

✉ CEO에게 이메일 보내기



geykkorea님 외 여러 명이 좋아합니다

koreabeyondcoal #기후위기 를 무시하고 우리 목숨을 위협 하는데 투자하려는 #자산운용사 들을 두고만 보실 건가요? 우리가 함께 하면 막대한 돈이 석탄발전소로 흘러 가는 것... 더 보기

6일 전

재생에너지 확대, 대전은 더 힘차게

장기비전·목표

| 함께 살고 싶은 에너지전환도시 대전 |

최종에너지 공급량	2020년(0.29%) 〈8.0천toe〉	⇒	2025년(3.60%) 〈102.8천toe〉	⇒	2040년(18.2%) 〈590.6천toe〉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2020년(0.65%) 〈62,738MWh〉	⇒	2025년(3.54%) 〈353,647MWh〉	⇒	2040년(20.0%) 〈1,969,592MWh〉
온실가스(CO ₂) 배출 감축	2020년(0.49%) 〈52,509tCO ₂ 〉	⇒	2025년(3.58%) 〈385,584tCO ₂ 〉	⇒	2040년(20.3%) 〈2,216,070tCO ₂ 〉

광역시도별 전력수급 및 전력 자립도



석탄에서 태양으로 _ 세계의 흐름

ENERGY & ENVIRONMENT JANUARY 25, 2021 / 8:18 AM / UPDATED A DAY AGO

Renewables overtook fossil fuels in EU electricity mix in 2020: Report

By Susanna Twidale

2 MIN RE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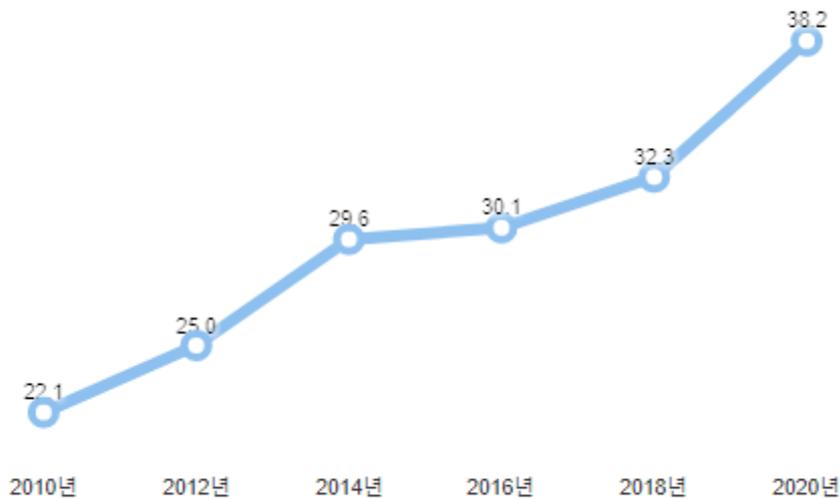


LONDON (Reuters) - Renewables overtook fossil fuels as the European Union's main source of electricity for the first time in 2020 as new projects came online and coal-power shrank, a report showed on Monday.



Slideshow (2 im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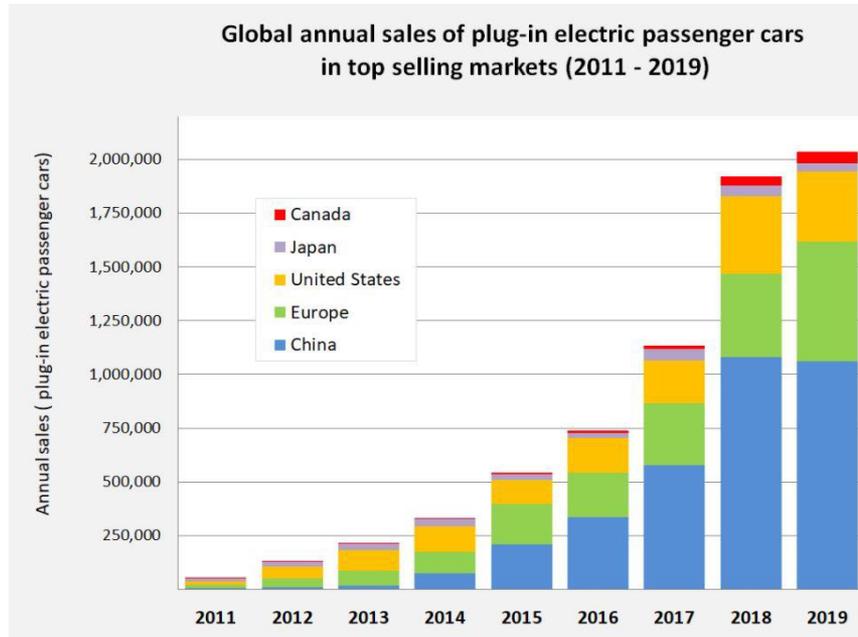
◆EU 국가 전력 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단위:%)



<엠버-아고라 에네르기벤데 보고서>

- 2020년 유럽 사상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제치고 최대전력공급원이 됨. 지난 해 EU 27개 회원국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체 전력 생산의 38%를 차지해 화석연료 비중(37%)를 첫 추월. (로이터통신, 2021.1.24)
- 유럽 풍력과 태양광 발전량은 2015년 이후 5년간 2배 이상 늘어, 석탄화력은 20%로 감소해 2015년 절반 수준으로 감소.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우리의 준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세계시장에서 전기승용차 연간 판매량 추이 출처. Mario Roberto Durán Orti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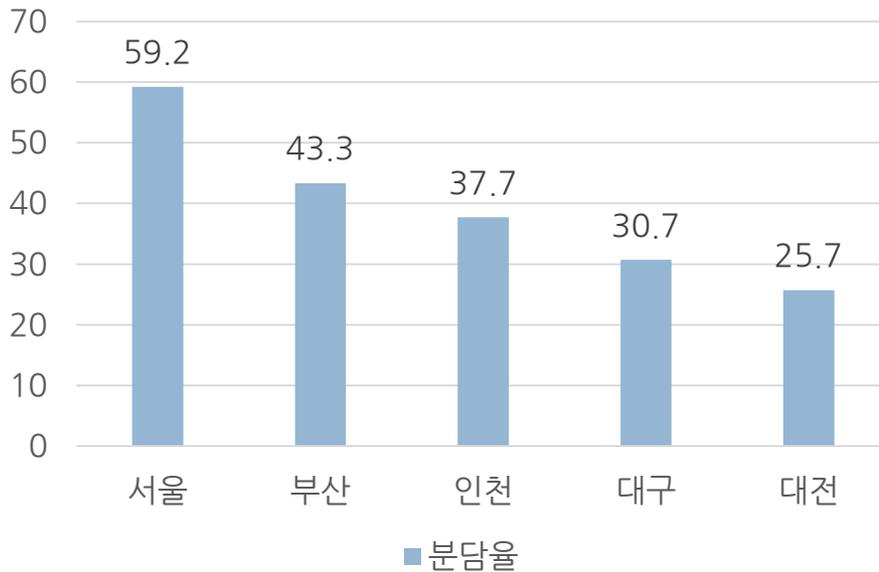
○ 전기차 생산을 선언하는 세계 자동차 회사들,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노동자들은?

- 전기차, 수소차 보급이 만능이 될 수 없다
 - 자동차 중심 교통체계 대전환 : 자전거, 대중교통
 - 친환경교통수단(트램) 연계한 교통수요 조정 필요

금속노조·현대차지부·기아차지부(2019)연구에 따르면전기차 비중이 확대되면 1만개 자동차 부품업체 중28%인 2,886개 업체 영향권 (출처: 김현우, 2020)

이동수단의 전환 - 대중교통, 자전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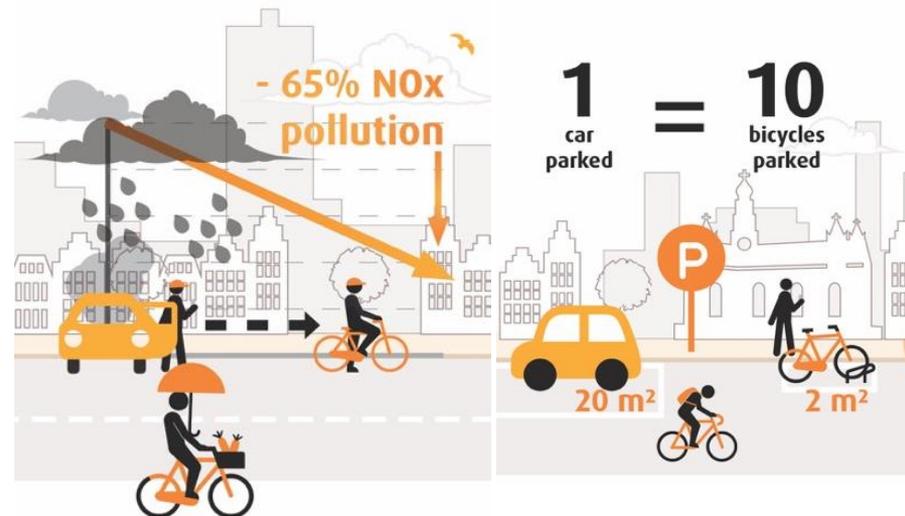
주요도시 대중교통 분담율



참고자료 : 2018 대전시 통행량 대비 대중교통 분담률, 주승용 의원(국민의힘)

- 대전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25.7% (2018년 기준)로 하위권 / 승용차 이용률 60.6%
-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시급!
 - 기후위기를 고려한 공공교통(버스, 자전거 등) 확대 필요

Amount of space required to transport the same number of passengers by car, bus or bicycle. (Poster in city of Muenster Planning Office, August 2001)



참고자료 : 이재영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원 강의자료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건물 이노베이션

○ 뉴욕시(NYC) Climate Mobilization Act : 뉴욕 온실가스 1/3 차지하는 중대형 빌딩 감축량을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80% 감축 / 관련 법안 10개 일괄 통과

○ 에너지저감시범마을, 녹색건축물 조성 및 지원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까?

- 도시 제로에너지건축물, 그린리모델링 / 동네 집수리 '서울가꿈주택' 사례

○ 유럽 이노베이트 프로젝트 'one-stop-shop' : 건물 에너지 효율 컨설팅부터 개조작업까지



CASE
3

강북구 수유동 48*~*번지
주채유형 다가구(3가구)
준공년도 1979년(06월13일)
주요구조 연아조

층수 지하 1층 / 지상 2층
연면적 148.73㎡
건축면적 63.75㎡

에너지
절감

생체안전
개선

생활편의
개선

외부환경
개선

영양공사	- 자선 1층 연면, 방, 거실, 주방, 화장실 영조교체 - 자선 2층 연면 조체
외벽공사	- 외벽 수성페인트 칠
단열공사	- 외기에 의한 자선 1층 연면, 방, 거실, 주방 내부 이보트 단열재 시공
설비공사	- 자선 2층 전기배선 및 분전반 전기 공사
당상공사	- 내지 경계담장 철거 후 1.2m 높이 재조성 - 도루족 대문 및 당상 철거
지붕공사	- 금속 기와지붕 교체
방수공사	- 옥상 도막방수

외벽 일부 모형 및 페인트 벗겨짐

탄소중립 하자면서 신공항 6개?

- 항공은 시간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고, 우리나라 항공부문 배출량은 연평균 4.42%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지방 SOC 국책사업의 경우, 대체로 20% 남짓
- 영국 히드로공항 제3활주로 건설계획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 위반 이유로 무산되기도.
- 제주 제2공항, 가덕도, 울릉도, 흑산도, 새만금,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까지 선거용 개발 계획들로 탄소중립은 잣빛이 되어.



출처 : 한겨레



출처 : 기후위기 비상행동

산을 파괴하면서 우리는 태양광을 늘려야 할까



www.autobrenner.BiPVKorea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기사

- 쪼개기식 편법으로 농지에 대규모 태양광 설치. 실제 농민이 아니어도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시설을 하면 1.2배 높은 단가 적용 받게 되는 점도 이용.
- 탄소흡수원인 산과 농지를 깎아 만드는 ‘난개발’은 방지해야 하고, 농지 태양광은 농민들 주도의 협동조합 방식으로 이익이 농촌공동체에 돌아가도록 하는 방향이어야.
- 건물, 도로, 산업단지 지붕 등등 도시부터 적극적으로 태양광을 확대해 가는 방향을 고민해야.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 환경에 위대한 산업과 공장은 지속가능한 녹색산업과 일자리로 바뀌어야 하고, 그 과정과 결과가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희생을 초래하지 않는 정의로운 것이야 한다는 아이디어
- 전환의 과정에 노동자들이 배제되지 않고 함께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야
- 탈탄소, 탈석탄 구호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준비, 계획, 소통, 협의가 필요함.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가 일어날 경우 현재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에 고용돼 있는 노동자보다 연료 공급과 회처리 작업을 하는 협력업체의 노동자들이 직접적인 고용 축소 영향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달라질 수 있을까

정치 | 대전충청

연재 4.15총선 | 852화

"총선 후보자 공약, 여전히 개발 프레임 못 벗어"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 총선 후보자 '환경·개발 공약' 분석 결과

20.04.09 16:12 | 최종 업데이트 20.04.09 16:15 | 장재완(jiang153) ▼

좋아요 30개 + 크게 | - 작게 | 인쇄 | URL줄이기 | ☆스크랩

본문듣기 | 원고료로 응원하기



지역 선거판에 매년 등장하는 개발과 도로건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공약을 마주해야 하나 : 어떻게 바꿀 것인가

더불어 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선 철도 역선을 따라 도시 숲길 공원 조성 •보문산 관광 개발 광역화를 통한 '오월드(동물원+플라워랜드) 연계
미래통합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문산 전망대에 사이언스타워 건립(대전 랜드마크) •보문산 관광개발사업추진
더불어 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청호 출렁다리 및 계족산 휴양림 조성 •연축지구 관동 동북부순환도로 건설 •계족산 체류형 휴양림 조성 •대청호 출렁다리 및 생태관광지 조성 •신탄진 강변고속화도로 건설(현도교-신구교) •대화-중리간 조차장 연결교량 건설 •경부고속선 한남대-신대동 구간 선로 지하화 •비래동 와동 신탄진동 외곽순환도로망 구축 •비래사-선비마을-동촌당공원 둘레길 조성
미래통합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래동-와동간 외곽도로 개설 추진 •와동-신탄진동간 외곽도로 개설 추진 •현도교-신구교간 강변도로 개설 추진 •대화동-법동-중리동 도로 연결 추진

기후위기와 생태관점으로
지역을 변화시킬 사람이 필요해!

플라스틱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자

플라스틱 폐기·재활용 상대비교 (2017)

대전

1인당 연간 발생량 52.9kg

종량제 혼합배출 40.7%

혼합배출 재활용률 0%

비교 내용

전국 1위

- ✓ 가장 낮은 인천의 2.2배, 광주의 1.4배
- ✓ 대구 52.2kg, 부산 50.1kg, 전북 46.6kg
- ✓ ... , 광주 38.0kg, 세종 30.9kg, 인천 24.5kg

17개 광역시자체 중 3번째

- ✓ 서울 38.3%, 제주 38.6%
- ✓ 인천 47.5%, 울산 53.3%, 광주 59.1%, ...

7개 지자체가 혼합배출 재활용률 0%

- ✓ 광주 75.8%, 부산 54.4%, 대구 45.7%, 세종 33.6%, ... , 경기 3.4%, 경남 1.8%

○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많은 도시 : 분리배출 비율은 59.3% 이나 1차 선별장 반입 기준

기업생산에 시민의 목소리를 높여야

재활용 되지 않는 화장품 용기!

아이크림 재활용 안돼요
에센스 재활용 안돼요
선크림 재활용 안돼요
Other? 로션 재활용 안돼요
쿠션팩트 재활용 안돼요
마스카라 재활용 안돼요
아이브로우 재활용 안돼요
복합재질? 핸드크림 재활용 안돼요
토너 재활용 안돼요
아이라인 재활용 안돼요
다 재활용 안돼요
재활용 안돼요
안돼요

화장품 용기의 90% 이상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재질로 만들어집니다.
용기를 언뜻보면 '재활용 가능'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더Other', '블투명 유리' 등은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 98%에 육박하던 녹색소주병 재활용률에 파장을 던진 진로 투명소주병
- 환경부가 화장품 용기에 "재활용 어려움" 표기를 예외로 적용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 _ 재활용 어렵게 생산되는 화장품 용기 책임은 나몰라라
- 기업이 용기를 재활용 가능하도록 개선토록 시민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필요!

농업과 농민들과 함께 가는 채식운동

- 축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전세계 18% 차지 (UN 식량농업기구)
- 더 많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열대우림의 70~90%가 사라지고 있어
-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일주일에 단 하루, 1년간 채식을 할 경우 = 1인당 30년산 소나무 15그루 심는 효과
- 적색육 높은 식단으로 인한 고혈압, 당뇨병, 비만 사망자 가장 많아
-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농업의 현실, 농민기본소득이나 소농과 함께 가는 구조를 고민하기 까지 확장되도록.

SBS 뉴스

인쇄

취소

뉴스 > 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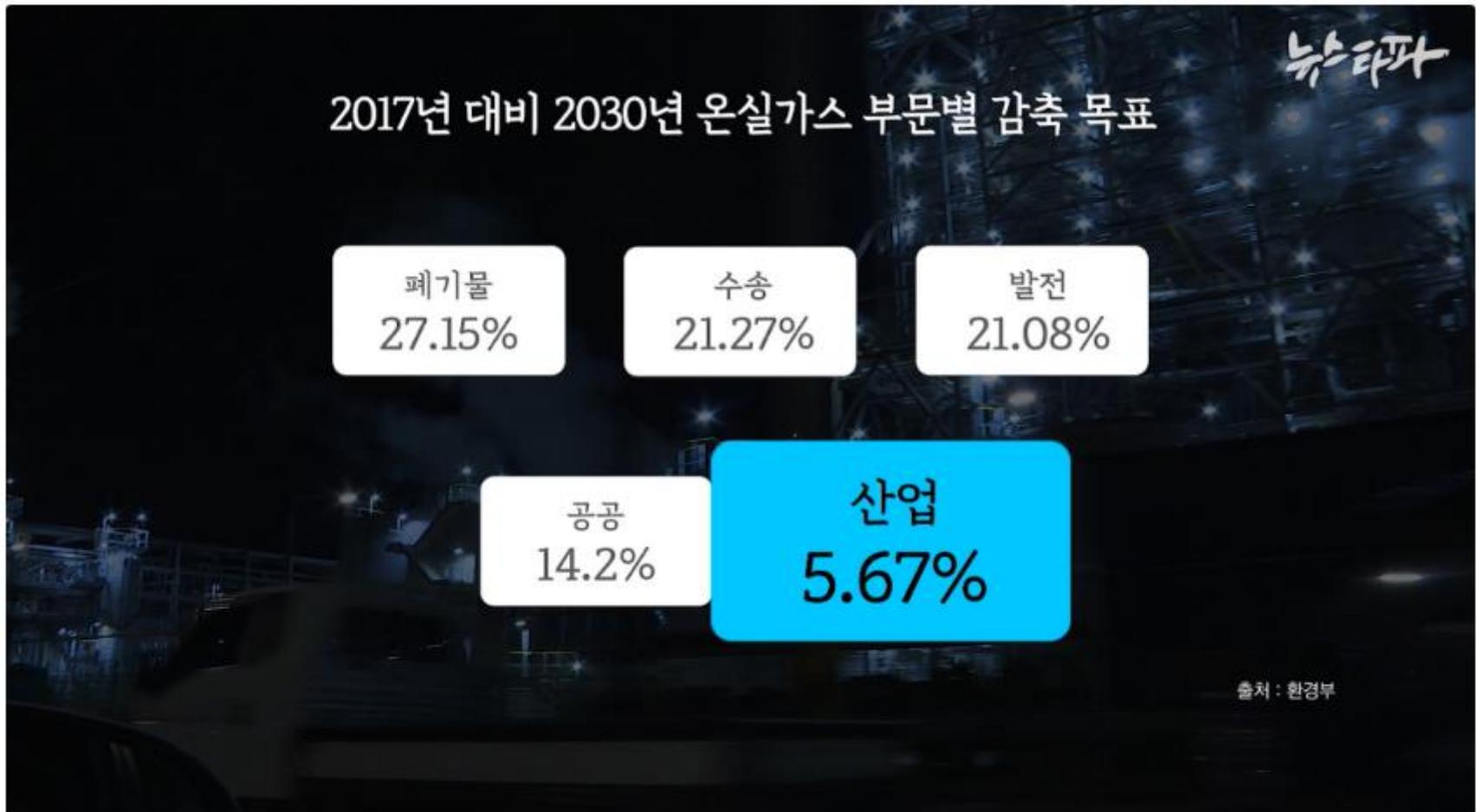
아마존 열대우림 2년간 1만 7천604km² 파괴...서울 면적 30배

SBS유영규 기자

입력 : 2021.01.09 09:18 | 수정 : 2021.01.09 0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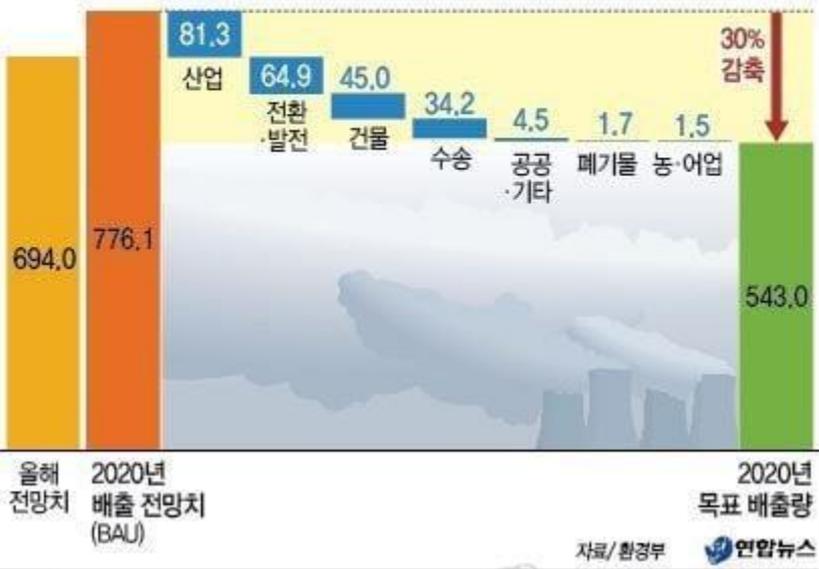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부터 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부터 잘!

2020년 부문별 온실가스 목표 감축량

단위: 백만 tCO₂e (여섯가지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단위)



[표 4-2] 대전광역시 2030년 예상배출량 대비 감축목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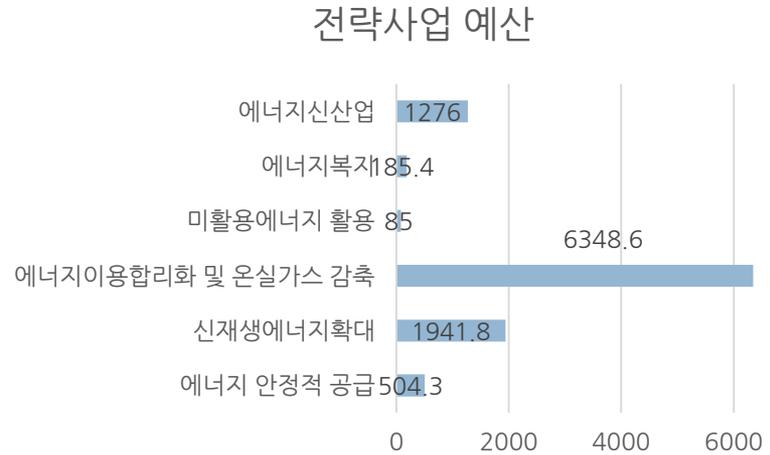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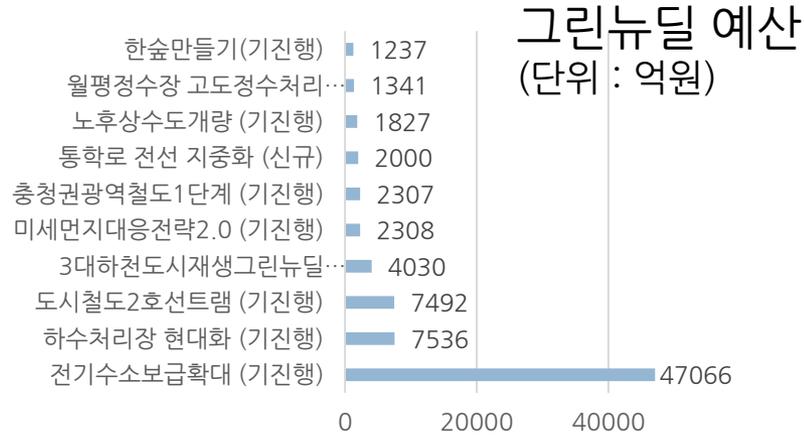
[단위: 천 tCO₂e]

구분	예상배출량(BAU)		환경부 권고 대전광역시 2030 감축목표량			대전광역시 2030 로드맵 예상감축량			
	2015	2030	감축량	감축후 배출량	감축률	감축량	감축후 배출량	감축률	
건물	가정	1,800	2,110	653	1,457	31.0%	504	1,606	23.9%
	상업	2,263	2,597	909	1,688	35.0%	1,039	1,558	40.0%
	소계	4,063	4,707	1,562	3,145	33.2%	1,543	3,164	32.8%
공공·기타	542	615	161	455	26.1%	524	91	85.2%	
수송(도로)	2,411	2,741	746	1,995	27.2%	486	2,255	17.7%	
농축산	27	30	2	27	7.9%	-	-	-	
폐기물	461	487	141	346	28.9%	69	418	14.2%	
총계	7,505	8,579	2,612	5,968	30.4%	2,622	5,928	30.6%	

대전광역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최종보고서, 143p

- 그린뉴딜은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언급이 없음 : 목표부터 세워야 실행력 담보
- 대전광역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간 목표 비슷 : 기후위기 시급성을 생각해 보면 더 높은 목표여야
- 국가계획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비슷하나 달성 시기는 상이함.
- 통합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아래 각 계획들 작동될 필요 있고, 겹치는 세부사업 부분들 정리 필요
- 각 계획별 행정부서 칸막이 극복 : 기획실(그린뉴딜), 기반산업과(지역에너지계획), 기후환경정책과(온실가스감축로드맵, 기후대응계획)

목표에 맞게 예산계획도 살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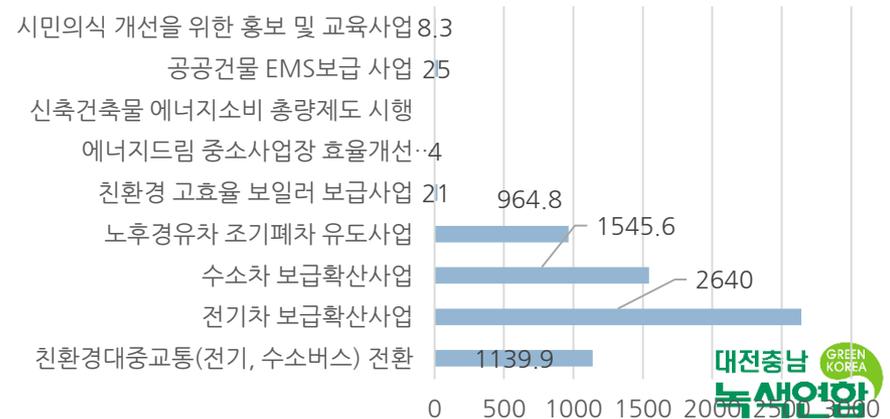


○ 당장의 기후대응, 시민생활 이익이 되는 것보다 기반확산, 조성, 적용 등 주로 인프라 건설에 편중된 예산.

○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전략사업 예산 중 61%가 에너지이용합리화 온실가스 감축 부분, 부문별 예산 보면 66%가 전기, 수소차 보급에 편중됨.

○ 기후위기로 불평등이 심화될 주거여건 개선(건물 에너지부분), 에너지복지 부문 예산 확대 필요.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대책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에 둔 계획 재개편



○ 대전시 그린뉴딜의 구체적인 목표는? **탄소제로도시 대전?**
건강한 녹색도시? 추상적인 문구가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에
맞게 재개편 되어야 함

○ 기후위기 인식, 그린뉴딜의 의미에 대해 우리 지역은 합의
되거나 공론화된 경험이 있는가

○ 우리 지역의 가능성, 자원들이 이미 분석되어 나온 지역에
너지계획, 온실가스감축로드맵은 과연 적당한가

○ 예산은 매년 제대로 투입되고, 행정은 힘을 쏟고 있는가

○ 특히 그린뉴딜은 기존계획 보다 더 나은 방향이어야.
- 기계적 계획이 아니라 시민과 마을, 자치구가 함께 움직이
는 방향으로.

- 돈을 들여야 하는 건설, 구축사업이 아니라 지역을 연계한
녹색경제(사회적 경제), 불평등 해소와 대응(주거, 노동)까지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파악하고 연결해보기

참고자료 : 그린뉴딜 정책현황과 전망, 이유진

시민생활과 밀접한 기후위기 대응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수많은 건물과 아파트를 두고 왜 태양광 설치할 땅이 없다고 하나 지역기반 협동조합이 더 많아지면?

대전시의 실패한 자전거 도로는 회생할 수 없나 트램과 연계한 교통수요 조절 필요



맹꽁이, 깃대종 생태사다리 삶과 담비



지역 재활용 체계 개선 대전에도 등장하기 시작한 리필샵 중구 카페거리는 일회용품 안쓰는 것 특화하면 어떨까



제언

1.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을 목표로 한 탈탄소 경제사회 대전환
2. 1.5도 목표달성을 위한 2050년 넷제로 실현
3.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존 전략으로 지역의 회복력 증대
4. 더 강하고 넓은 연대 : N개의 시민조직, 강한 행동력을 담보한